



정운천 국회의원, 고창포럼 특강

정운천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한반도 첫수도 고창포럼’ 4번째 강사로 ‘소멸되는 농업,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그는 “선진국의 40세 미만 청년농가 비중은 대부분 10%에 가까운 반면 우리나라는 0.68%에 불과하다”며 “농촌에 청년을 유입하려면 주거·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정책을 군 단위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창 고창에 큰 애정을 보인 그는 노을대교 국가계획 반영과정에서 직접 고창과 부안의 현장을 찾아가 하면 국회내 수박, 복분자, 멜론 등 고창지역 농산물 홍보대사를 자처하기도 했다.

정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고창에서 태어나 전남 해남으로 내려가 키위 재배를 시작해 ‘잡다래 아저씨’로 불리며 초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고 스타 농업인으로 이름을 날리는 등 지난 2008년 초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지냈다.

그는 “전대받던 농업이 식품산업으로 연계돼 최고의 부가가치산업으로 가치창조 하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고창출신 명사와 함께하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포럼’은 다음달에는 이연택 회장을 초청해 ‘국가와 지방의 발전전략 그리고 스포츠’라는 주제로 명품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안병철 기자



고창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고창군은 다음달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불황으로 고창군 지역경제도 어려워지면서 체납액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상황, 상하수도 요금은 깨끗한 물공급과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다.

수용가의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이 누적돼 상하수도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총괄로 특별징수 대책반을 편성,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괄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자진납부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며 납부자에 대해 징수예고 조치를 진행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안병철 기자

임실군수 출마예정자 7인 “불법 선거 현수막 안건다”

임실군, 불법 선거 현수막 바로 뺏다…군민 보호 최우선

임실=박길수 기자

임실군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정치인 불법 선거 현수막을 발견 즉시 철거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명절과 선거철만 되면 난무하는 정치인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며 “정치인 불법 현수막을 예외 없이 철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정조치는 내년 지방선거 임실군수 출마예정자들이 적극 동참하면서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내년도 임실군수 출마예정자 7명은 최근 JTV 전주방송과 자원순환사회연대 및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불법 선거 현수막 안 걸기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심민 군수를 비롯해 김진명씨,

박기봉씨, 정인준씨, 한병락씨, 한완수씨 등 임실군수 출마예정자로 거론되는 6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개인 일정으로 협약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전상두 전 임실축협조합장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군이 불법 현수막 게첩 주제와 내용을 불문하고 발견 시 즉시 철거하고 철거 시에도 항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출마예정자가 협약 해지의사를 밝힌 뒤 선거 현수막을 게시하더라도 자치단체의 즉각적인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보호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식 현수막 외에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 동안 정치 관련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의거·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해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현수막 게시를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에 대한 해석상 문제로 철거에 어려움이 있었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출마예정자들이 현수막 철거에 항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만큼 게시 주제와 내용에 상관없이 발견 즉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이대영 산업건설국장은 “선거철이 되면 불

법 현수막 게시 문제로 행정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번 협약체결로 철거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해소된 만큼, 불법 현수막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포커스

고창군, 마한역사문화 복원-세계화 잔걸음

고창군은 마한시대 모로비리국의 수도로써 ‘전북·광주·전남도’ 함께 내년 차기정부 국정과제에 ‘마한문화권 발전과 마한역사문화 복원 및 세계화’를 건 의했다.

이는 지난 26일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열린 ‘마한사 복원 대선과제 공동건의 디지털 서명식’에 유기상 군수가 참여해 마한의 상징적 공간과 경관의 재창조는 물론 지역 역사문화를 새롭게 조명해 체계적 정비의 계기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전북 유일의 국가사적인 고창 봉덕리 고분군과 망동유적, 예지리토성 등 마한문화 양상을 잘 보여주는 유적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가운데 고고학 조사와 연구를 통해 300여개소 이상의 마한유적이 분포해 앞으로 마한의 실체를 밝혀줄 놀라운 유적과 유물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선 7기 고창군은 찬란한 역사 속



마한의 중심지로 모로비리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지난해는 고창마한 세계문화유산 등재 학술조사와 토론회와 2019년도 고창 마한 문화유산 도록 발간 등이 추진됐다.

유 군수는 “마한(馬韓)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뿌리가 되는 문화로 백제와 신라, 가야에 비해 연구와 정비가 미흡해 왔다”며 “전북 등 낙후지역의 문화권 육성을 통해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 상생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병철 기자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정기점검

고창군은 다음달 2일부터 15일까지 3차 정기점검을 위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가동을 중지한다.

이는 분기마다 보완해야 할 시설물을 확인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여 소각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작업이다.

이번 정기점검 기간동안 소각로 내부 세정작

업과 화격자 및 내화벽돌 이상유무 등을 점검하고 보수도 병행하여 소각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환경시설사업소 강희종팀장은 “소각시설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을 통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철 기자

고창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인증서 수령

고창군은 지난 27일 문화재청 주최로 열린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에 참가해 세계유산 인증서를 받았다.

이는 지난 7월 26일 중국 푸저우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의 갯벌’이 우리나라 2번째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것.

이날 세계유산 등재 기념 영상을 시작으로 대통령 등 영상 축하, 문화재청장 감사패 전달 및 표창 수여,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했다.

행사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문화재청장, 해양수산부장(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 서삼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했다.

유기상 군수는 “고창 갯벌은 온 인류가 소중한 여기고 후세에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자산이며, 앞으로 고창 갯벌의 가치를 보존하고 알리는 일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고창 갯벌은 해양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이 입증되었으며, 동아시아와 대양주 철새 이동로에서 핵심 기착지이기도 하다.

/안병철 기자



고창군, 베트남 계절근로자 환영식

고창군이 27일 선운산 유스호스텔에서 베트남 계절근로자 27명의 환영식을 열었다.

이들은 선운산 유스호스텔에서 2주간 자가격리 도중 실시한 2번의 PCR 검사결과에서도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관내 9곳의 농가에 배정돼 약 4개월간 농업에 종사하게 된다.

이날 환영식은 유기상 군수, 최인규 군의장과 군의원들, 전북도 대외협력국 한민희 국장, 농림

중앙회 고창군 진기영 지부장과 고용농가가 참석했다.

김용진 친환경농업팀장은 “이번 베트남 계절근로자 입국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근로자를 도입할 예정이다”며 “소규모 농가도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파견근로 사업도 추진해 고창군 농촌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철 기자

